

광인(狂人)의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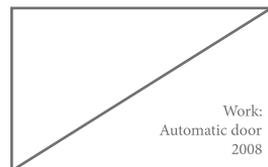
최종하의 작품 속엔 산업혁명 이전의 세계에서 똑 떨어진 것 같은 괴팍한 장인(匠人)이 한 명 살고 있다. 그 사람은 아직 오늘날의 일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첨단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이 체득한 기술에 대한 긍지가 강한 사람이기에 오늘날의 편리한 일상에 쉽게 져어들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낯선 세계에 적응하려 애쓴다. 그는 수공(手工)의 시대를 살다 온 장인답게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들어 오늘날의 도구와 견주어 본다. 그는 톱나비귀와 도르래에 대한 한정된 지식과 초보적인 토목기술을 결합시켜 갖가지 기계와 장치를 제작하는데, 그 도구들은 과거에 속한 것도 아니고 현재에 속한 것이 아닌 기묘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그 느낌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을 명쾌하게 규정지을 수 있는 범주나 개념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최종하의 도구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보르헤스(Borges)의 수필에서 언급된 중국식 동물 분류법이 떠오른다. ‘멀리서 볼 때 파리처럼 보이는 동물’, ‘물주전자를 깨뜨리는 동물’, ‘황제에 속하는 동물’과 같은 보르헤스의 해괴한 동물 분류법이 외계에서 온 듯 낯설듯이, 집 채만 한 크기의 『휴지풀이기계』, 나무 발판을 비밀번호 개수만큼 차례로 밟아야 비로소 작동하는 『자동문』, 도무지 용도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나무 선반인 『안티 줌 카메라』와 같은 최종하의 도구들도 미지의 세계에서 온 듯 낯설고 이질적이다.

최종하가 만든 도구들은 오늘날에 제작된 도구들이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는 불문율을 대수롭지 않게 위반한다.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부적절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그 도구들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스케치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기상천외한 기구들처럼 경제적 이윤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기술에 대한 개인의 필요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다. 그 도구들은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작되었기 때문에, 표준화될 수가 없다. 무엇보다 그것은 기업과 같은 인간 집

단인 ‘인간 일반’을 위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최종하라는 개인이 최종하라는 ‘개별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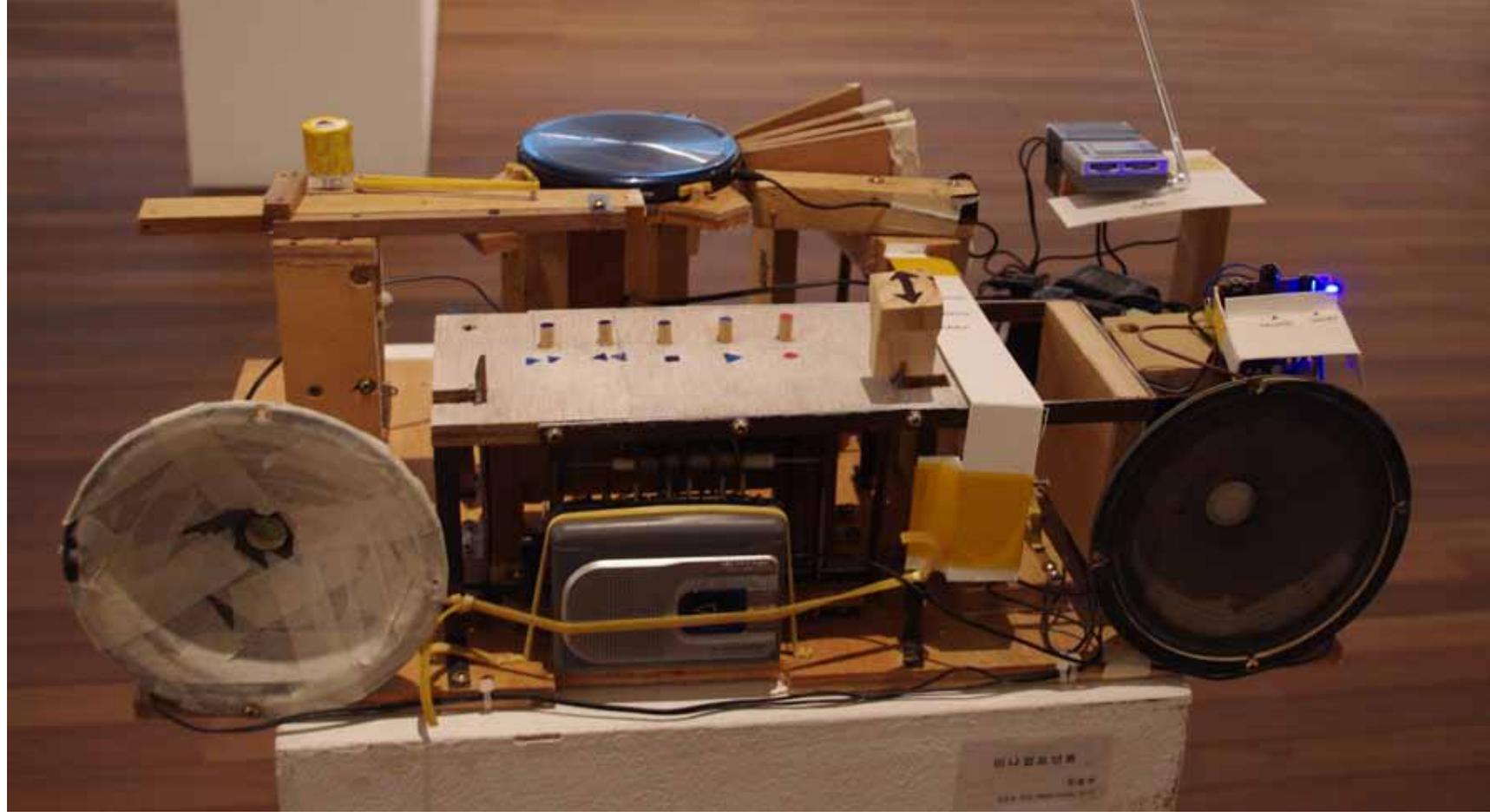
물론 개인이 개인을 위해 만든 도구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많다. 하지만 그런 수공 제품들은 오늘날 일상의 중심에 들어서지 못한다. 기업과 같은 인간 집단에 의해 의해 표준화되고 대량 생산되는 물품만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어떤 때에나 동일한 모습으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개인의 숨씨에 의해 만들어져 유일한 시간과 공간에 놓여 있는 물품은 그 희소성을 인정받아 ‘명품’이 되지 않는 이상, 오늘날의 일상에 제대로 존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개인이 개인을 위해 만든 도구는 불법체류자들이 그렇듯이 일상의 주변부에 있는 듯 없는 듯 몰래 존재하거나, 자신의 희소성을 인정받아 명품으로 생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된다. 최종하가 만든 도구는 개인이 개인을 위해 만든 것이지만, 일상의 주변부에 은둔하지도 않고, 명품이 되려고 발버둥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휴지풀이기계』, 『자동문』, 『안티 줌 카메라』와 같은 명칭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스스로 오늘날의 일상에 통용되는 도구가 되고자 한다. 마치 시민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이 ‘정식 시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불법체류자와 같이 최종하의 도구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 사태를 더욱 모순적이고 황당하게 이끄는 것은 자신의 도구에 대한 최종하의 태도이다. 그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도구를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그는 대기업 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다름없는 현실적인 진지함으로 『휴지풀이기계』, 『자동문』, 『안티 줌 카메라』와 같은 도구를 만든다. 그가 의도한 것은 어디까지나 편리와 실용(實用)이지, 유머나 코미디가 아니다. 최종하는 자신의 도구를 보고 그저 재밌어 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산업혁명 이전의 기술관에 의거하여 진지하게 질문한다. 도구란 사람의 필요와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면 그만인 것이 아닌가? 두루마리 휴지 접는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내 기계가 왜 웃음 거리 가



되어야 하는가? 나무발판을 숫자의 개수만큼 밟기만 해도 문을 열어주는 내 장치를 왜 어이없어 하는 건가? 내가 만든 도구는 이처럼 오늘날 일상의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놓여 있는데 말이다.

지금 언급한 적재적소는 글쓰기가 결들인 용어가 아니라, 최종자가 자신의 도구를 설명하면서 비중을 실어 직접 사용했던 말이다. 하지만 그가 믿고 있는 적절한 재료와 장소는 오늘날 실제로 통용되는 적절한 재료와 장소에서 심각하게 어긋나 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배인 적절함이 얼마만큼 '개별 인간'에 가까이 있고, 얼마만큼 '인간 일반'에 멀리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는 또한 오늘날의 일상에 적절하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만큼 '개별 인간'에 멀어져야 하고, 얼마만큼 '인간 일반'에 가까워져야 하는지 제대로 가능하지 못한다. 이러한 기묘한 무지는 최종자를 시대착오적인 광인(狂人)으로 만들지만, 광인이 아닌 정상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내는 오늘날 일상의 불문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 첨단 기술 시대의 일상은 한 개인이 호모 파베르(Homo Faber)로서 자신의 인간됨을 개별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오직 전체 소비자의 일원으로서, 혹은 전체 생산자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일반화 시킬 때에만 오늘날의 일상은 한 개인에게 '첨단의' 편리와 효용을 베풀어 준다. 대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고 모든 삶터에 편재해 있는 도구들은 그러한 불문율의 가장 직접적인 집행자가 된다. 첨단의 도구들을 통해 일상의 불문율은 한 개인에게 유일자로서의 개별성을 포기하고 인간 일반에 소속되어 부속처럼 기능하는 특수자가 되기를 종용한다. 우스꽝스럽게도 최종자의 도구는 이를 심각하게 어기고 있으면서도 마치 스스로 그러한 불문율의 모범적으로 지키고 있는 양 착각에 빠져 있다. 이처럼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에서 뚝 떨어져 광인(狂人)이 되어버린 장인(匠人)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여기서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 체험과

산업혁명 이후 가장 발달된 기술 시대의 체험이 공존하는 한국이란 삶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라면 불가능하겠지만, 한국에서라면 그러한 시대착오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Work: Miny Component 2009

이 얘기는 한국인 최종자의 어처구니없는 착각이 허용된 공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체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최종하는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에서 오늘날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와 오늘날을 동시에 살고 있는 까닭에 그 같은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종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란 용어를 언급하면서, 그 말이 한국적인 느낌이 있어 좋다고 했다. 자신의 만든 국적 불명의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는 영똥하기 짝이 없지만, 최종자의 얘기 속에는 한국이란 삶터에서 이루어졌던 '압축성장'에서 파생된 독특한 공간감 동시 체험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한 체험 때문에 경약용이 거중기를 고안하고, 최한기가 동아시아적인 자연 과학 연구를 펼쳤던 시절의 기술과 도구가 갑자기 오늘

날의 일상 속에 천연덕스럽게 구현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산업화 이전의 세계와 산업화 이후의 첨단 기술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최종자라는 광인(狂人)이 만든 도구는 보르헤스의 해괴한 동물분류법이 기존 사물의 질서를 교란하듯, 오늘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도구에 대한 통념을 근원에서부터 미묘하게 흔들게 되는 것이다. 19세기의 도스토예프스키가 환멸에 차서 예견했듯 2+2의 해답이 무조건 4가 되어야 하는 수정공 속의 개미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최종자가 만든 광인(狂人)의 도구는 2+2의 일반적인 해답인 4가 거부되는 개별자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저도 모르게 암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박사과정 강 정 호



Maschine eines Verrückten

In Jong Ha Choi's Arbeit lebt ein exzentrischer (verschrobener) Handwerker, der aus einer Welt der Vorindustrialisierung kommt. Er ist in Verwirrung geraten, wie er die überflüssige neue Technologie der heutigen Alltagswelt akzeptieren soll. Aber er ist auf seine eigene Weise bemüht sich dieser fremden Welt anzupassen, ohne sich an die bequeme Alltagswelt zu gewöhnen, da er Stolz auf seine erlernte Technik ist.

Als ein Handwerker, der aus einer handwerklichen Welt kommt, baut er je nach Bedarf Maschinen und vergleicht sie dann mit heutigen. Er baut verschiedene Maschinen und Apparate, indem er seine elementare Bautechnik und sein begrenztes Wissen über Zahnrad und Antriebsscheibe kombiniert, doch sie gehören weder zur Vergangenheit noch zur Gegenwart. Sie wirken merkwürdig. Es ist nicht leicht dieses Gefühl zu erklären, da es keine passende Kategorie und Begriffe gibt, durch die man es klar definieren könnte.

Wenn man mit Choi's Maschinen näher in Betrachtung kommt, dann assoziiert man sie mit einer Art von chinesischer Tier-Klassifizierung, welche in einem Essay von Borges erwähnt wurde. Zum Beispiel die außergewöhnlichen Klassifizierungen der Tiere von Borges, „die von weitem wie Fliegen aussehen“, „die den Wasserkrug zerbrochen“ und die Tiere, „die dem Kaiser gehören“. Auf so eine Weise sind die Maschinen von Choi auch außerirdisch und heterogen -[Klopapier Abrollen Maschine]

welche groß wie ein Haus ist, [Automatische Tür], welche sich erst öffnet, wenn man ein Holzbrett so oft wie die Summe der Geheimzahl getreten hat und [Anti-Zoom-Kamera], ein großes

Holzbrett, deren Zweck sich nicht erfassen läßt.

Die Maschinen von Choi verstoßen gegen das ungeschriebene Gesetz, welches heutige Maschinen stillschweigend halten. Somit sehen seine Maschinen irgendwie wie etwas Ungeeignetes und Komisches aus. Wie die außergewöhnlichen Apparate von Leonardo da Vinci, sind Choi's Maschinen dafür gebaut, dass sie, ohne sich über den wirtschaftlichen Profit Gedanken zu machen, nur für den individuellen Bedarf auf Technik und für die Erfüllung seiner Neugier da sind. Diese Maschinen sind nicht standardisierbar, weil sie ohne Berücksichtigung auf Massenproduktion gebaut sind, vor allem nicht für 'allgemeine Menschen' von einer großen Firma sondern für ein 'Individuum' wie das von Jong Ha Choi.

Es gibt heutzutage natürlich auch viele selbst gebauten Maschinen für das Individuum. Aber solch ein Handwerk kann im heutigen Alltag keine große Rolle spielen. Nur das Massenprodukt, das von einer großen Firma standardisiert ist, existiert stabil und frei von Raum und Zeit. Wenn das individuelle Produkt, wegen seines Seltenheitswertes nicht als ein Meisterwerk anerkannt wird, dann ist es schwierig, den heutigen Alltag zu bestehen. Deshalb setzt das individuelle Handwerk alle Kraft auf die Anerkennung als Meisterwerk, um zu überleben, oder es existiert in der Alltagswelt heimlich wie illegale Einwanderer.

Aber das individuelle Handwerk von Choi versucht weder als Meisterwerk anerkannt zu werden noch sich von der Alltagswelt zurückzuziehen. Vielmehr versucht es ein allgemein verwendbares Werkzeug zu werden, wie seine Arbeitstitel



Work: Improvement Device of Television 2011

[Klopapier Abrollen Maschine],[Automatische Tür],[Anti-Zoom-Kamera]zeigen. Seine Maschinen sind in Verwirrung geraten, wie ein illegaler Einwanderer an sich selbst als einen legalen Bürger glaubt, ohne der Voraussetzung für einen legalen Bürger zu genügen. Aber die Haltung von Choi gegenüber seinen Maschinen lässt diese Situation

absurderweise in Widerspruch stehen. Er akzeptiert auch nicht, dass die heutigen Menschen seine Maschinen komisch finden. So wie die Ingenieure einer großen Firma ihre Produkte entwickeln, baut er sehr ernsthaft seine Maschinen wie [Klopapier-Abrollen Maschine],[Automatische Tür],[Anti-Zoom-Kamera]





Work: Cigarette Chair 2011

Eigentlich ist seine Absicht nicht Komödie oder Witz sondern die praktische Anwendung und Bequemlichkeit. Aufgrund der Technologie der Vorindustrialisierung konfrontiert Choi die Menschen, welche seine Maschinen nur lustig finden.

“Meine Maschine funktioniert, wenn sie meinen Bedarf und meine Neugier zufriedenstellt. Warum soll meine Maschine von den Menschen als lustig empfunden werden, wenn sie sehr gut zum Klopapier-Abrollen funktioniert”. “Was ist komisch an einem Holzbrett, welches erst funktioniert, wenn man die Summe der Geheimzahl darauf tritt”. “Also ist meine Maschine ‘das richtige Material am richtigen Ort’.

ist der Ausdruck von Choi beim Erklären über seine Maschinen. Aber bei seinem Glauben an ‘das richtige Material am richtigen Ort’ handelt es sich um

einen Verstoß gegen das heutige richtige Material am richtigen Ort. Er ist sich nicht bewusst, wie nahe seine gewohnte Geeignetheit (‘das richtige Material am richtigen Ort’) dem ‘Individuum’ und wie fern sie von dem ‘allgemeinen Menschen’ ist. Er kann auch nicht vermuten wie sich die Menschen gegenüber dem ‘Individuum’ und dem ‘allgemeinen Menschen’ verhalten sollen, um für die heutige Alltagswelt geeignet zu sein. So eine merkwürdige Unwissenheit macht ihn zu einem anachronistischen Verrückten. Aber dadurch wird das ungeschriebene Gesetz den Menschen offenbar gemacht, welches im heutigen Alltag in Vergessenheit geraten ist.

Der Alltag im technologisch hoch entwickelten Zeitalter lässt die Erfüllung des Individuums in seinem Leben als Homo Faber nicht zu.

Nur wenn man sich als ein Mitglied der Gesamtkonsumenten oder als ein Mitglied der Gesamtproduzenten verallgemeinert dann kann er im heutigen Alltag die ‘Spitze’ Bequemlichkeit und die Tüchtigkeit haben. Die allgegenwärtigen Produkte mit Logos von einer großen Firma werden die unmittelbaren Ausführenden vom ungeschriebenen Gesetz. Durch die neuen Produkte einer großen Firma, drängt das ungeschriebene Gesetz das Individuum seine Individualität aufzugeben und ein Teil der allgemeinen Menschen zu sein. Paradoxer Weise wirken Choi’s Maschinen so, als ob sie selbst das ungeschriebene Gesetz verkörpern, obwohl sie nicht so sind.

Wie sollte man einen Verrückten akzeptieren, der aus einer Welt der Vorindustrialisierung kommt. Hier muss das Leben in Korea erwähnt werden,

wo die Erfahrung der Vorindustrialisierung und das Erleben der hochentwickelten Technologie koexistieren. So ein Anachronismus ist in Korea möglich, aber in Europa, in den USA oder in Japan ist es unmöglich. Demnach könnte die alberne Verwechslung von Choi nicht von seiner falschen Phantasie sondern von seiner realistischen Erfahrung abgeleitet sein. Das heißt, Choi kommt nicht aus einer Welt der Vorindustrialisierung. Da er gleichzeitig heute und in der Vorindustrialisierungswelt lebt, stürzte er in Verwirrung. In der Tat, als er ‘das richtige Material am richtigen Ort’ erwähnte, mochte er diese Worte so gern, da er in ihnen etwas koreanisches empfindet. Obwohl die Erzählung über seine staatenlose Maschine sehr absurd ist, ist das Leben in Korea in seiner Erzählung inbegriffen, welche einzigartig synchronisiert in Raum und Zeit, von ‘kompressiver Entwicklung’ abgeleitet 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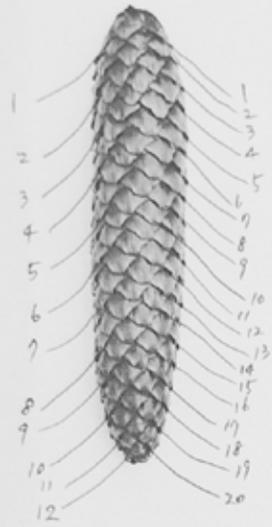
Wegen so einem Leben werden Technik und Maschinen im heutigen Alltag gleichgültig realisiert, wie die Technik in der Zeit, wo Keo-jung-gi (Maschine um schwere Lasten zu heben) von Yak-yong Jeong erfunden wurde und die ostasiatische Naturwissenschaft von Han-gi Choi erforscht wurde. Daher lässt die Maschine eines Verrückten, Jong Ha Choi, der in der Zeit von Vorindustrialisierung und hochentwickelter Technologie gleichzeitig lebt, Gedanken der Anderen, die heute allgemein anerkannten Ideen über gemeinsame Maschinen, auf subtile Weise von Grund aus schwanken, sowie die außergewöhnliche Tier-Klassifizierung von Borges die Ordnung der bestehenden Dinge beunruhigt.

Schon im 19. Jahrhundert ahnte Dostojewski mit tiefer Enttäuschung, dass die Menschen wie Ameisen in einem Kristallpalast wohnen, wo 2 plus 2 immer 4 sein muss. Doch die ‘Maschine des Verrückten’ von Choi suggeriert uns, dass es eine individuelle Welt geben kann, wo ‘2 plus 2 ist 4’ verweigert wird. ■





Bad Ems



$$12 : 20 = 1 : 1.\bar{6}$$

Work: Golden Pine Corn 2011

Geeignete Konsequenz_
Balmoral_
Bad Ems_Deutsch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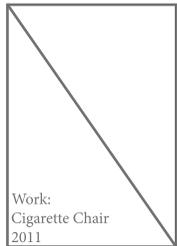




Work: Golden Choco-Chip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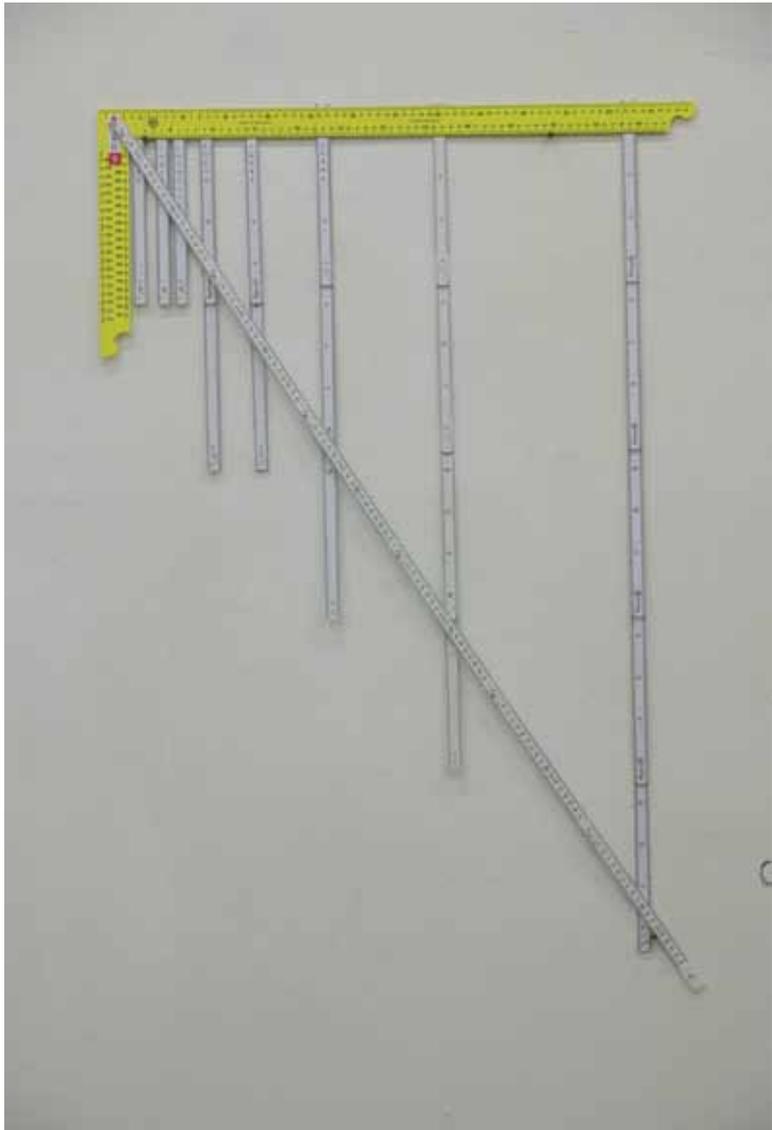


Work: Golden Cigarette 2011



Work:
Cigarette Chair
2011





Work: Golden Ruler 2011